

튼튼하고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수상

2023년 4월 14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앨버타주의 다문화주의를 촉진하는 것이 그 취지인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를 설립했다.

앨버타주에는 배경, 신앙 및 문화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앨버타주 정부는 이 다문화주의가 바로 앨버타주를 결속시키는 본질적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신설된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Premier's Council on Multiculturalism)는 앨버타주의 지역사회들이 더 튼튼해지고 모든 사람에게 더 포용적이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조언하게 된다.

동 자문위원회는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수용 및 교육적 교류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고취하고, 촉진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한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구성원이 이해되고, 중시되고, 존중되는 느낌을 받는 수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 앨버타주의 다양성은 우리의 최대 강점의 하나이며,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더 밝은 미래를 건설하는 데 있어 주축이 된다. 우리 목표는 모든 사람이 소속감을 느끼고, 한 사람의 문화, 언어 및 종교가 존중될 뿐만 아니라 중시되는 앨버타주를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신설 자문위원회의 활약을 고대한다.”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

2명의 공동위원장 Sumita Anand 및 Philomina Okeke-Ihejirika가 이끄는 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앨버타주의 다양한 지역사회들과 더 견실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앨버타주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다. 문화간 인식 및 이해를 형성함으로써 앨버타주 주민은 새롭고 더 튼튼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다.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의 설립을 발표하게 되어 자랑스럽다. 다문화주의는 앨버타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체계의 주축이다. 이 자문위원회의 지역사회 지도자들은 저마다의 값진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주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필요, 여러 가지 문제 및 우려를 더 정확히 규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앨버타주는 기회와 희망의 등불이다. 우리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을 유치하여 우리 앨버타주를 보금자리로 삼도록 하고 있다. 오늘 이 발표는 앨버타주가 계속해서 모든 앨버타주 주민에게 포용적이고 수용적이며 안전한 공동체가 되도록 하기 위한 진일보이다.”

라잔 소니 통상이민다문화주의부 장관(Minister of Trade, Immigration and Multiculturalism)

앨버타주 반인종주의 행동 계획

앨버타주 정부는 모든 종류의 인종주의 및 증오를 단정적으로 규탄한다. 다문화주의가 변함없이 앨버타주 사회의 주축으로 유지되고, 모든 사람이 앨버타주를 차별과 증오가 없는 보금자리로 삼을 수 있도록 지속적 개입과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는 2022년에 설립된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Alberta Anti-Racism Advisory Council - AARAC)의 일을 보조한다.

2022년 AARAC는 ‘앨버타주 반인종주의행동계획(Alberta Anti-Racism Action Plan): 다양성 및 수용의 강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앨버타주 주민들이 서로에 대해 더 수용적이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앨버타주 정부가 취할 28개 조치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현재까지 7개 조치 사항이 시행되었고, 12개가 시행 중이며, 9개는 검토 및 실행 준비가 된 상태이다. 이러한 조치 사항과 아울러 앨버타주 정부는 불심검문 관행 중단, **경찰법(Police Act)** 개혁, 앨버타주 증오범죄조정국(Alberta Hate Crime Coordination Unit) 및 대중오범죄지역사회연계(Community Liaison on Hate Crime) 창설, 보안인프라보조금(Security Infrastructure Grant) 프로그램 창설, 반인종주의 및 민족문화 보조금 창설, 기능직 및 직업 훈련에 대한 민족문화 보조금 제공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앨버타주 반인종주의행동계획에 명시된 각 시책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스미스 주수상은 유관 부처에 2023-24 회계연도 말까지 각 조치 사항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목표를 위해 스미스 주수상은 각 시책의 시행에 필요할 경우 최대한의 재정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앨버타주는 오랫동안 문화, 언어 및 민족성이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된 다문화 모자이크로 알려져 왔다. 우리 주는 기회의 땅이기는 하지만 인종화 집단은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 인종주의, 차별 및 불평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

세대 앨버타주 주민을 위해 더 밝은 미래를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가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와 협력한다는 것에 기쁨을 금할 수 없다.”

케이시 마두 기능직전문직부 장관(Minister of Skilled Trades and Professions)

간추린 사실

- 앨버타주 주민 4,177,720 명 중:
 - 27.8%(1,161,420)가 가시적 소수 인종 집단이다
 - 23.2%(970,975)가 이민자이다
 - 6.8%(284,465)가 원주민이다
-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앨버타주 주민(가시적 소수 인종 인구)의 비중이 1996 년의 269,280 명에서 2021 년의 1,161,420 명으로 4 배 이상 증가했다.
-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 명단:
 - Sumita Anand (공동위원장)
 - Philomina Okeke-Ihejirika (공동위원장)
 - Ali Eltayeb
 - Ali Rakka
 - Alphonse Ahola
 - Buta Singh Rehill
 - Charles Yang
 - Charlie Wu
 - Dahlia Mostafa
 - Ebenezer Asare
 - Erick Estrada
 - Hussein Warsame
 - Rekha Gadhia
 - Sherrisa Celis
 - SunJong Chun
 - Tariq Khan
 - Thomas Cheuk
 - WaLe Balogun
 - Basir Saleh
 - Gurbachan Singh Paul
 - Holly Mah
 - Jackie Halpern

- Jibril Ibrahim
- Justin Jimmy
- Payman Esmaili
- Rick Walters
- Rolando Inzunza
- Thomas Eapen
- Virginia Sumalinog
- Sheliza Kluge
- 자문위원들은 다음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 문화간 이해 촉진 및 다문화 지역사회 기리기
 - 다양한 사회적 교류를 위한 혁신적 문화 시책 및 기회에 대한 지원
 - 다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교육 시책 및 공공 인식의 제고
 - 원주민 및 신규 이민자가 기술 및 재능을 공유하고 앨버타주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의 증대
 - 모든 사람이 자신이 수용되고 자신의 문화 및 전통이 중시되는 느낌을 받는 주의 조성
 - 앨버타주 반인종주의행동계획에 기술된 조치 사항의 시행 촉진
 - 직장 및 직업 관련 차별을 타파하기 위한, 개별화된 인종 기반 데이터의 수집에 대처하는 반인종주의 입법의 도입
 - 증오 범죄 입법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 정부와의 지속적 협력
 - 해외에서 교육 받은 전문직 종사자를 위한 멘토십 프로그램 창설

관련 정보

- [주수상다문화주의자문위원회\(Premier's Council on Multiculturalism\)](#)
- [앨버타주 반인종주의행동계획\(Alberta Anti-Racism Action Plan\): 다양성 및 수용의 강화](#)
- [앨버타주 반인종주의자문위원회\(Alberta's Anti-Racism Advisory Council\)](#)

멀티미디어

- [기자회견 시청하기](#)
- [기자회견 듣기](#)